

건축공간에서 장소적 기(氣)체험 연구

이 규 목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Experiencing Place-Associated 'Chi' in the Architectural Spaces

Lee, Kyu Mok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xistence of 'Chi' in some architectural spaces like restaurants and drink shops. 'Chi' of a place means originally a vital force in Feng Shui theory and in a new sense is very similar to a spirit of place or 'Genius Loci' of Western concept. Seven case stud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y consist of free interviews asking where the most favorite place is, why he/she likes the place and what the personal memories or events with the place are. Summarizing the results, the author found that though some places are plain and even poor in architecture and interior, they evoked a strong sense of place mainly because the owners or landladies not only cooked very well but also were very kind and sympathetic to customers. In terms of 'Chi' theory, we can say that good Chi, the vitality of landlady permeates the place including interior, furniture, food and etc. In conclusion we, architects may make good place by skillful design, but architectural space can also become a beloved place by owner's caring and devotion which come from his/her Chi.

Key Words : Chi, a sense of place, a spirit of place, Genius Loci

I. 서론

오늘날 원자구조나 생물학적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사회현상,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환원주의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양자론에서 보여주듯이 입자들은 독립된 낱알이 아니라 확률 모형이며, 분리될 수 없는 우주적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기체적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Capra 1985). 필자(1995)도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경관을 해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만물의 본질을 기(氣)의 역동성으로 보고 이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동양철학의 세계관을 거론한 바 있다. 이렇듯이 기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존재양식으로서 이러한 기개념을 통해서 본 세계관 속에는 물질과 생명 사이, 물질과 정신 사이의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짧은 연구는 바로 도시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기’의 존재를 체험 연구를 토대로 현상학적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도시 속의 평범한 건축공간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가지면서 장소화 하는가 라는 문제를 기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해 내거나 대안적 연구방법의 제시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기의 학문적 연구에 접근하려는 소박한 바램이 필자의 의도에 깔려 있다.

II. 기의 현대적 해석

우리가 기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그것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는 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존재 혹은 기능의 근원으로서 물질 혹은 생명 나아가 정신까지도 성립시키고 있는 본바탕이다”(丸山 1986)라는 동양철학적 정의를 수용하기로 한다. 기라는 것을 원자적인 미립자는 아니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구극극미(究極極微)의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고(앞 책), 혹은 물체를 하드웨어, 기를 소프트웨어에 비유하여 이 세상 만물은 이 두 개의 복합개념으로 보기도 하고(강대봉 1993), 물리학에서 불변의 법칙으로 통하는 엔트로피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보기도 한다(김재은 1996). 기의 성질이 어떻게 인체에는 경락을 통해서 흐르는 기가 있고, 자연에는 풍수에서 말하는 지기(地氣)가 있으며, 빼어난 예술 작품에는 신명의 신기(神氣)가 있으며, 종교에는 베일 속에 가린 신비로운 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거의 상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지거나 볼 수는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체험에 의하여 기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이다. 기의 체험이나 제시가 아직은 진실과 허위, 상상과 사실이 뒤범벅되어 있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보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나, “기는 제3의 에너지”(주간조선 1999. 8. 19)라고 하는 등 오늘날 기의 현대적 연구와 응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실내장식·조경분야에서도 인기가 있어 홍콩·상하이은행의 설계에서는 구조형태나 입구의 위치 등의 결정에 풍수적 기철학이 영향을 준 바도 있다(O'Connell 1999). 앞으로 인체의 기든 땅속의 기든 기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에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이 만든 건축, 도시 혹은 사회환경에도 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김지하(1996)는 풍수에서 지구생태계에 단

전과 경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로서 ‘사회적 경락’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가 말하는 거대한 우주적 경락체계로서 기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이르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일상적인 체험 속에 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도시의 장소들에 기가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이 개념은 서구의 일부 학문분야에서도 개념화되어 있는 지령(地靈 혹은 場所의 魂; genius loci, spirit of place)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령’은 노르웨이의 건축가 노버그 슐츠(Norberg-Schulz 1979)가 실존현상학적 개념을 발전시켜 개념화 한 것으로, 어느 장소가 독특한 분위기를 지녔을 때 이를 장소를 지켜주는 혼(guardian spirit)이 있다고 하여, 이 혼은 사람과 장소에 생명을 주어 소멸할 때까지 따라다니며 그 장소의 성격을 결정해준다고 했다. 이때 genius는 그 사물이나 장소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라는 본질적 특징을 결정한다. 1960년대 말부터 서구의 조경가나 도시설계가가 많이 활용한 이 현상학적 장소론의 패러다임은 필자 자신도 20여년간 심취한 바 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의 학계에서는 모두 시들해졌다(Johnson 1994). 이 심오한 개념은 경관의 보다 깊은 이해에는 유용했지만 설계에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서구적 ‘장소’개념은 동양적 개념의 기와 연결고리라는 면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고, 서구적 개념에서의 한계를 동양적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기는 항상 변화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도시속의 기에 있어서도 본래 땅이 가지고 있던 기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바뀌고, 건물내외의 각종 인공물이나 자연요소에 의하여 달라지고, 인간의 사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오

랜 사용과 거주에 의하여 어느 특정의 공간이 장소화 하는 것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사용화(私用化; appropriation, 필자 1988) 현상과 유사하다. 인공물이 때로는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게 된다. 기가 방해를 받으면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Marfori 1994). 인간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풍수쟁이(地官)들은 음양의 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인간에게 불행과 질병이 온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논증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아 일단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여기서는 건축공간과 같은 인공환경에서 기가 체험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III. 연구과정 및 사례분석

3.1 연구과정

연구의 텍스트가 된 것은 1999학년도 2학기 필자의 대학원 강좌 “도시경관론”을 수강한 9명의 학생들이 각자 1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한 서술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이다. 연구내용은 이 중에서 환경체험내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분석·종합한 것이다. 학기초 우선 장소의 기가 있는가에 대한 세미나를 한 다음 학생들에게 4단계로 나누어 과제를 주었다. 1단계에는 도시내의 어느 특정 장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즐겨 찾는 사람, 혹은 단골집(술집·다방·음식점·공원 등)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2단계에는 그 장소를 즐겨 찾는 이유, 그 장소의 물리적 특징(실내장식 등 고정적 요소와 사람을 포함한 비고정적 요소 포함), 그 장소와 얽힌 일화나 추억 혹은 재미있었던 사건 등의 질문을 포함시켜 30분에서 1시간정도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대화

44 이규목

식 인터뷰를 한다. 3단계는 인터뷰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장소의 위치적·건축적·행위적·의미적 특징을 분석하여 실제 장소의 물리적 형태와 비교하여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장소의 기가 과연 있는지 판단한다. 9명의 면담자가 사례를 발표하였으나 1명은 직접 녹취를 하지 않고 면담자 자신이 요약 정리하였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다른 1명은 피면담자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 기대하는 체험면담이 안되어 제외하여 총 7개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9명중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은 직장경험이 많은 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는데 사회경험이 없는 일반대학원생이 사회경험이 많은 학생보다 더 충실한 면담을 한 결과로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7개의 조사내용을 요약하고 필자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여 이를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사례분석

사례 1: 피면담자는 33세의 대졸 남자 회사원으로서 그의 단골인 대상장소는 일산에 있는 카페 ‘화사랑’이다. 이 카페는 70년대부터 있어 온 비교적 오래된 카페로 일산의 백마역 부근 카페촌에 소재해 있으며, 피면담자가 일산 아파트 공사현장에 근무중 동료들과 즐겨 찾던 곳이다. 카페는 대로변이 아닌 소로에 접해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로서 잘 정돈되었지만 깔끔한 마감이라기보다는 허름한 판자로 되어 있다. 둘 사이의 면담은 마치 친구 사이처럼 자유스런 대화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거긴 말이지, 일단 자연스런 분위기가 있잖나. 가면 사람이 분위기에 녹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 있잖나. 그곳 공기의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것 말이지.

- (술값이) 비싸진 않지. 싸.

- (자리가) 편한 거 하고는 거리가 멀지. 왜냐하면 나무로 그냥 짜서 만든 거니까. 편한 자리는 없는데..... 뭐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뭐 오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편해.

- 심플하고 세련된 분위기보다는 그냥 막 칙칙하고 막가는 분위기.

- 문을 딱 열면 그 어둑침침한, 누리끼리한 조명아래 장발 주인이 있고, 벽에 낙서 막 다 되 있고.....

- 아, 그리고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걸려 있는 그림이 ‘텔라크룩스’(들라크로와를 지칭)그림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의 다른 그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수준이 느껴지는 거지, 뭔가 있는 것 같고.....

- (분위기가) 편하지, 그거지..... 맘이 편하단 말이지.

위의 서술에서 보이는 몇 개의 키워드. 단골집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녹아 들어가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맘에 들고 또한 편하다. 이 편안함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편안함을 말한다.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 중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다.

사례 2: 피면담자는 27세의 대학 졸업 후 쉬고 있는 남자로서 고향은 시골이어서 대학생들부터 서울에서 지냈다. 단골집은 성대앞 “삼용이네” 주점으로서 입학이후 계속 즐겨 찾았다. 술집은 성대 큰 찾길 뒷골목 2, 3 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골목에 있다. 면담자가 여학생이므로 데이트하듯이 진행되었는데 중요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옛날 분위기죠 뭐, 전체적으로. 건물이 낡았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형용사로 치면 칙칙하다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

- 대단히 좁고 의자는 많고 그래요.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공간 자체도 좁고, 불편하고..... 그런 게 마음에 안들기 보다는 오히려 사소하게 느껴져요.

- 애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는 이유는 그놈의 정 때문에..... 길들여졌다고 할까. 이제는 술값이나 안주가 싸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 아주머니 팬이라고 할까 추종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주머니가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전에 보니까 자주 오는 사람들 이름하고 연락처도 따로 적어 두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살갑게 구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 그 집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막걸리를 먹어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가 막걸리를 먹고 싶고, 먹어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에 취해요.

- 그러니까 그 집 오는 사람들끼리의 무언의 분위기, 동질감 그런 게 있어서 서로 쉽게 접근했던 건지도 모르지요.

이 인터뷰에서 감지되는 것. 물리적 구조가 매우 불편하고 술값이 싸지 않은 데도 찾게되는 몇 가지 이유. 독특한 분위기,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살갑게 구는 태도와 친절, 앞의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편안함 등. 면담자가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이 한 장소와 인연을 맺고, 그 장소를 즐겨 찾는 이유에는 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 감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례 3; 피면담자는 55세의 무역업을 하는 회사 사장으로서는 면담자의 아버지이다. 술을 마시기 위한 장소는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즐겨 찾는 곳을 몇 장소 거론하다가 우

연히 들렀다가 10여년 동안 자주 찾게 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백조”라는 이름의 술집을 택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길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 술집으로 10여평 남짓한 좁은 곳에 테이블 몇 개와 의자 몇 개, 그리고 한 옆에 작은 주방이 보이는 그런 허름한 장소이다. 이제 부녀간의 대화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추려 보자.

- 우연히, 아주 우연히 가게 됐지. 그게 술 먹는 사람의 감각이야. 아, 괜찮아 보인다..... 그게 술 먹는 사람의 센스고 예감이지. 틀림없이 괜찮을 꺼야.

- 그냥 느낌이야.

- 그곳에 가는 건 내부가 어땠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인간관계야.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야.

- 사건이야..... 예를 들어 말이지 아주 쪼그마한 것. 비가 오는 날 택시 타는 곳까지 우산을 씌워준다던가. 아주 간단한 거야.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현신적인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지. 아주 작은 데서 만족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비를 맞고 술집에 들어섰을 때 옷을 털어 주면서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어서 오십시오”라는 다른 거야.

- (술을) 강요하지 않아..... 내 선택으로 먹는 것이지..... 아주 마음이 편안해.

우연히 발견한 술집이 막연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있다는 말. 내부 시설이 어땠고 하는 것보다 그 주인의 행동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이 장소를 찾게 한다는 것. 장소가 주는 편안함은 모든 선택이 고객에게 있다는 데에서 오는 것.

사례 4; 피면담자는 33세의 박사과정중인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청 근처의 “김해집”이라는 음식점을 단골집으로 들었다. 골목길을 여러 번 꺾어서 위치한 자그마한 장소로 김해집이라는

46 이규목

상호보다는 “아육국집”으로 더 알려져 있다. 면담자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바로 그 음식점에서 면담했다.

- 이 집이 좋아요. 진짜 편해요.
- 음식값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리도 혼잡하지 않고, 단골들만 와요.
- 아줌마가 좋고..... 아줌마, 중요하지. 안주라도 한 접시 더 주고, 중요한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맛이 있잖아..... 그 집 음식이 다 괜찮아.
- 서울 한 복판에 있는 집치고는 시골스러운 집이지요.
- 근데 이제는 여기를 와 버릇해 가지고 다른 집 가기가 그렇죠.

면담자가 방문한 인상으로 보면 이 장소는 특기할만 한 요소가 전혀 없는 평범한 장소이다 (그림 1.2 참조). 그림에도 피면담자는 이 장소를 단골로 삼은 이유가 장소가 편하다는 것을 첫째로 들었다. 그 요인은 무엇보다도 주인 아줌마, 특히 그녀의 음식 맛과 인간적인 분위기가 좋다 등.



(그림 1) 김해집 입구 및 간판



(그림 2) 김해집 실내

사례 5; 피면담자는 26세의 남자대학생으로서

서울의 자택에서 통학하고 있다. 그는 7년 단골의 시립대 근처의 “학사당구장”을 즐겨 찾는 장소로 들었다. 건축적으로 특별히 잘 치장한 것은 없고 2, 3층에 걸쳐 있어 다른 당구장보다 오히려 불편하다. 당구대가 한 층에 6개정도 있는 소규모의 업소로서 부부가 12년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 그 장소보다는 운영하는 분들이랑 친분도 있고, 그 집이 편해서 그 집을 이용합니다.
- (편하다는 것은) 그냥 낯선 장소에서 해매다가 그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는 반가움 같은 것이지요. 응 그곳이 반가운 느낌이 들어요.
- 일단은 편안한테 그 편안함이 일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찾아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기 때문에 한창 여행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 뭐 장소적인 특징 같은 것은 별로 없고..... 학교에 오는 길 집에 가는 길에 있다는 것하고, 제 친구들, 저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을 그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 정말 동네의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데요. 어떤 상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는 만큼 돈을 내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프거나 하면 죽이라도 췌다주시고, 우리가 MT라도 간다고 하면 가서 잘 놀라고 고기라도 재워주시고.....
-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제2의 학교라고 할까요. 타향이 오래 되면 고향 같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서울이 집이기 때문에 하숙 생활은 안했는데 다른 애들과 같은 자취방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고향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편안함. 주인 아줌마의 온정이 모든 당구장 고객에게 느껴진다. 특히 이 면담자는 당구장 주인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 추억 같은 것은 없어. 12년 동안 똑같은데 파출소에 많이 갔지. 자다가도 단골 애들이 파출소에서 전화하면 보호자 역할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12년동안 다니는 친동생 같은 애들도 있지.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없어. 자 잘하게 살아가는 거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례 6; 피면담자는 43세의 미혼여성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환경설계전문가이다. 면담은 단골 미장원과 음식점 2개소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미장원은 내용이 간단하여 제외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음식점은 강남의 뒷길 1층에 위치한 “수릿골”이라는 자그마한 한식집인데 2층은 카페로서 전체 4층의 근린생활 시설로 지은 아담한 건물이다.

- 이 카페에 자주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같이 온 직원이 “1층엔 식당이에요”해서 식당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 후로는 손님이 오면 으레 이 집만 데려온다.

- 음식이 정갈하고 맛이 있다. 분위기도 아주 고급이지는 않지만 천하지 않고 구석구석 센스 있는 인테리어가 맘에 든다..... 또, 주인이 여우같이 예쁘고, (값도) 분위기에 비하여 싼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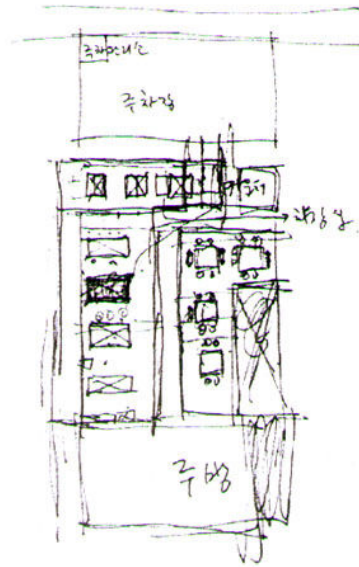
- 바닥의 타일이 좋고 수릿골이라는 이름이 예쁜 것 같다. 또 서빙하는 아가씨들의 개량한복을 예쁘게 입은 것이 괜찮은데.....

- 따지고 보면 이 집은 한 켠 들어와 있고 교통도 좋지 않은데 단골손님이 많은 것을 보면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다. 건물외관이나 인테리어, 주인, 서빙하는 여지들까지 모두 세련되어 있고 음식이 맛이 있고 비교적 싼 편이며 두루 흠잡을 데가 없다.

피면담자는 주변 환경에 대하여 민감한 감각을 가진 환경설계가로서 상당히 치밀하게 조건을 붙여 분석적으로 따져 본 다음 장소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다. 집의 외관과 간판에 이끌리며, 예쁜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례 7; 피면담자는 51세의 중년남자로서 컨설턴트회사 부사장이며 조정기술사자격을 가진 전문가이다. 그의 단골은 “한우정”이라는 숯불구이집으로서, 강남대로 뒷길 다소 변화한 골목의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그림 3) 한우정 평면스케치

강남의 대형 숯불구이집에 비하여 비교적 소규모로서, 실내는 방과 의자 및 테이블로 나누어져 있는데 4인용 의자용 테이블이 4개, 방에 긴 테이블이 4개, 미닫이 칸막이 방에 6인용 테이블이 2개 있다.

- 범건축 사람들과 저녁 먹으러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자주가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의 맛, 고향의 맛을 느끼게 되었다..... 돌김과 계란찜, 칼치찜이 가장 맛있으며,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똑같은 맛이다.

- 주인 아줌마가 단골이 될만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을 깊이 기억하고

48 이규목

잘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술을 잘 먹는지 나한테 남다르게 신경을 써주었다.

- 종업원들도 주인아줌마 못지 않게 친절하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준 바가 없는데, 주인아줌마가 종업원들에게도 나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어서 모두 친절하게 대해준다.

- 우선 주인이 친절하고 음식이 편안하고 분위기도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편하다.

- (실내분위기는) 아주 세련되지도 않고 고리타분한 분위기지만 아주 격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고 생각한다.

- 음식과 주인, 주변여건, 2차 가는 것 등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다목적형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 먹는 것이 가장 편하다.

음식점이 뒷골목 즉, 대로 후면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음식점이 좁고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점,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주인이라는 다른 장소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3.3 종합분석

7개의 사례를 종합해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위치적으로 볼 때 모든 장소들은 뒷골목에 있거나, 골목길을 여러 번 꺾어 들어가 있거나, 자기가 사는 동네 소로변에 위치한다. 규모는 대체로 소규모로서 10여평 남짓한 것도 있을 정도이며 의자와 테이블 몇 개뿐인 경우도 있다. 소규모 음식점이라는 성격상 대로변 변화가보다는 뒷길에 위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단골집의 특징상 눈에 덜 띄는 위치가 선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내공간은 대체로 협소하고 의자의 간격도 좁아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이다. <사례 6>의 “수릿골” 이외에는 건축적으로 특색이 있거나 두드러진 점이 없고 평범하거나 수준이하이다. 단골집이 되는

요인이 반드시 건축적인 특징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 단골집을 찾아가게 된 것은 우연히 방문한 경우가 제일 많고, <사례 3>에서처럼 감각이나 예감 즉 ‘이 집에 가면 뭔가 다를 것이다’ 하는 감을 가지고 찾은 경우도 있었다. 아마 우연히 찾았을 때에도 뭔가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단골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편안함’으로 요약되는 그 집만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와 ‘아줌마’로 통칭되는 그 집주인이다. 그 집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녹아 들어갈 듯한, 자연스런, 옛날 같은, 칙칙한, 시골스러운, 고향 맛 같은, 고리타분한 등으로 표현된 분위기는 장소를 즐겨 찾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감정이다.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위환경을 감싸는 이 독특한 분위기(ambience)는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우리가 환경을 지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Ittelson 1973). 우리는 때때로 어느 장소에 대하여 생기가 있다 서기(瑞氣)가 보인다 살기를 느낀다 또는 음산하다 따뜻하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러한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바로 장소의 ‘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사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로 해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하여 ‘편안한’ 감을 느낀다. 이 편안함은 마음의 편안함일 수도 있고, 값이 싸서 오는 편안함일 수도 있고, 실제로 편리해서 오는 편안함일 수도 있는 인간이 어느 장소에서 느끼는 가장 보편적 감정이다.

장소의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아줌마이다. 이 아줌마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실내외 장식과 가구 잡기를 관장하며 고객들을 온갖 정성으로 살피고 또 ‘살갑게’ 대한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기란 물질과 생명 사이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공간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져 아줌마가 가진 ‘기’가 음식과 건축공간에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기에 감응한 사람들이 그 장소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 단골로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음식의 고장 전남 해남의 “천일식당” 여주인 딸의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 일부를 인용해 보자(월간조선 9910).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음식을 만들 때 다들 위생장갑을 끼는데 이걸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예요. 어머니는 장갑 같은 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음식의 맛이란 재료를 썰고, 무치고, 지지고, 볶고 하는 동안 손끝에서 우러나오는 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손맛이 있냐 없냐는 바로 이 기에서 결정된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음식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좀더 일반화하여 말하면, 단골집이란 결국 공간 구석구석 스며있는 ‘자잘하게’ 사는 주인의 손길과 정성스런 행동에 의하여 장소적 특징을 갖게 되고, 이를 이용하면서 그 장소에 감응하고 공감하는 이용자들이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례연구 대상 장소들이 대개 건축적으로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사람에 따라 장소의 건축적 혹은 실내장식적 요소에 반응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1〉에서는 벽에 걸려 있는 그림에 관심을 가져 그 그림으로 그 집의 수준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며, 〈사례 6〉에서는 “수릿골”이라는 상호와 인테리어가 맘에 들어 하며 심지어 바닥 타일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에 장소들이 보다 건축적으로도 특징 있는 요소를 갖췄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건축적 요소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것이다.

IV. 결론

어느 장소의 기는 본래 그 장소가 자연상태일 때 가지고 있는 자연의 기 즉 지기(地氣)도 있고, 인공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형태와 구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인공의 기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시골 같은 곳에서는 좋은 자연의 기

가 흐르는 반면 도시에서는 좋은 기와 나쁜 기가 극단적으로 변한다고 한다(최창조 1995).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기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그 장소를 만들고, 보살피고(caring), 꾸려나가는 인간의 기가 어떻게 그 장소의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역할 하는지 체험분석이라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관찰하였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는 그가 돌보는 장소에 전이되어 장소적 특징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음식이나 가구나 건축공간은 사람의 사랑과 가꾸기에 따라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주인이 아껴주는 물건은 생명력이 길어진다(이성준 1997). 건축적인 공간이 좋은 장소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간의 물리적 질이 좋아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람은 가장 뛰어난 장소 메이커(place-maker)가 되어 그 장소를 즐겨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모든 살아 있는 물체는 기가 있다. 필자는 이기를 생기(生氣)라고 하여 무생물의 땅이 지닌 지기와 구분하고자 한다. 식물은 기를 만들어내고 공급하여 장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최창조 1995),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생물 중에서도 가장 기가 충만하여 알게 모르게 다른 사물에 전파된다. 일본 광륭사(廣隆寺)의 반가사유상은 우리 선조 예술가가 적송이라는 나무에 다 살아 있는 사상을 불어넣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불상을 만들 때 혼이 옮겨졌다고 말하기도 한다(석성우 1986). 이 모두 아름답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신령함이 깃든 신기(神氣)의 예술인 것이다(김영주 1992). 요약하면 자연의 기는 지기, 예술의 기는 신기, 그리고 장소의 기는 생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고찰한 단골집들은 주로 주인의 생기를 받아 이에 감응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기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건축

50 이규목

적인 혹은 도시적인 공간 자체가 갖는 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논의한 평범한 장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전환될 수 있다면 건축적으로 훌륭한 공간은 더 더욱 우리에게 사랑 받는 공간으로 전환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지만 이를 증명하는 일이야말로 설계가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대봉(1993) 기, 서울, 언립.
2. 김영주(1992) 신기론으로 본 한국 미술사, 서울, 나남.
3. 김용운·김용국(1985) 동양의 과학과 사상, 서울, 일지사.
4. 김재은(1996) 기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5. 김지하(1996) 자치와 생명, 서울, 솔.
6. 석성우 편저(1986) 기, 서울, 백양출판사.
7. 이규목(198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연구”, 건축학회 논문집, 4-1.
8. 이규목(1995) “도시경관 해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론”, 터전, 3, 서울대환경대학원.
9. 이성준(1997) 우리 아파트 기 살리기, 서울, 샘터.
10. 최창조 편역(1995) 서양인이 본 생활풍수, 서울, 민음사.
11. Capra, F; 이성범·구윤서 공역(1985)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
12. Ittelson, W. H. ed.(1973) Environment and Cognition, N. Y., Seminar Press, Inc., pp. 14-15.
13. Johnson, Paul-Alan(1994) The Theory of Architecture, N. Y., Van Nostrand Reinhold.
14. Marfori, Mark Douglas(1994) Feng Shui, Kuala Lumpur, S. Abdul Majeed & Co.
15. Norberg-Schulz, Christian(1979) Genius Loci, London, Academy Editions.
16. O'Connell, Kim. A.(1999) "The Harmony of Space", in Landscape Architecture, 1999. 10.
17. Steele, Fritz(1981) The Sense of Place. Boston, Mass., CBI Pub. Co.
18. 丸山敏秋(1986); 박희준 역(1997) 기란 무엇인가, 서울, 정신세계사.
19. 월간조선 1999. 10.
20. 주간조선 1999. 8. 19.